

# 황사·미세먼지에 주민들 불안한데... 측정소도 없는 시·군들 ‘기가막혀’

전남 17곳 미설치 ‘맨손대책’

광주 담당인력 고작 1명

매년 황사의 습격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대책은 결집마 수준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는데 필수 장비인 ‘미세먼지 측정소’가 아예 없는 지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운용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으며, 광주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이 1명이어서 운용이 원활하지 않은 형편이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된 곳은 광주지역이 5개구에 6곳(광산구 2곳)이다. 또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중 5개 시·군에 16곳에 설치돼 있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아예

측정소가 없어 아무리 황사가 심해도 경보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남지역 미세먼지 측정소는 ▲여수(5곳) ▲광양(4곳) ▲순천(4곳) ▲목포(2곳) ▲영암(1곳) 등 주로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돼 마을이나 일반 주택가 등은 사실상 방지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방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광주지역 학교 및 언론사 등에 팩스와 문자를 이용해 주의보를 발송하고

있다. 또 일반인 상대 문자서비스는 광주시의 경우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500여명에만 제공하고 있어 효과가 떨어지고, 전남도는 지역민을 상대로 서비스 자체가 없는 상태다.

더불어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담당 인력이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각각 1명 뿐이어서 퇴근 후나 휴일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제 운용 자체를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상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시청앞 ‘태극기 퍼포먼스’

광복 70주년이자 제96주년 3·1절을 앞두고 26일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태극기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패밀리랜드 5년째 흉물 탱크 ‘눈살’

광주시 안보홍보용 전시...시대착오적 발상 지적

광주 패밀리랜드에 5년째 탱크 2대가 흉물처럼 전시돼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안보홍보용’을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시민들은 탱크 전시 위치가 놀이시설 내부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탱크를 이용한 안보교육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패밀리랜드 매표소 입구에 전시된 ‘전차’(M48A2C·무게 44.8t, 길이 8.69m)

와 ‘상륙돌격장갑차’(LVT-7A1·무게 24t, 길이 7.9m) 등 2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안보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실제 전투장비를 직접 보게 함으로써 애국심과 안보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에서 국방부에서 무료로 대여받아 전시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 계몽이나 강요에 의해 애국심이 높아질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다.



26일 광주시 북구 생룡동 패밀리랜드 매표소 입구에 사용연한이 지나 못쓰게 된 안보홍보용 전차와 상륙돌격장갑차 2대가 전시돼 있다.

전쟁기념관·전쟁박물관 등이 아닌, 놀이시설인 패밀리랜드에 전시되는 데 따른 적절성 논란도 뒤늦게 제기되는 형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안보

관을 심어주자는 보훈단체 권유를 받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패밀리랜드에 전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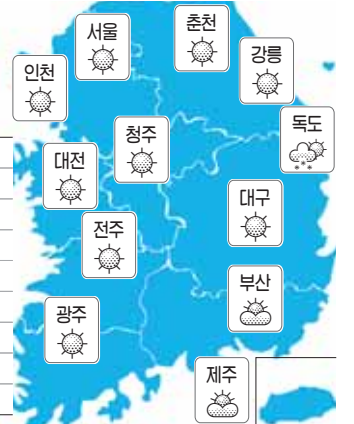
해돋이 07:06  
해질녘 18:25  
달 뜨는 시각 12:53  
달 지는 시각 02:17

#### 주말 비소식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다.

####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맑음 | -2/6 | 보성  | 맑음 | -2/5 |
| 목포 | 맑음 | -1/3 | 순천  | 맑음 | -2/6 |
| 여수 | 맑음 | -1/5 | 영광  | 맑음 | -2/2 |
| 나주 | 맑음 | -3/5 | 진도  | 맑음 | -1/3 |
| 완도 | 맑음 | -1/4 | 전주  | 맑음 | -3/5 |
| 구례 | 맑음 | -3/5 | 군산  | 맑음 | -3/2 |
| 강진 | 맑음 | -1/4 | 남원  | 맑음 | -4/5 |
| 해남 | 맑음 | -1/3 | 홍산도 | 맑음 | 1/3  |
| 장성 | 맑음 | -3/4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앞바다       | 북서~북 | 1.5~2.5 | 북  | 북동 1.0~2.0 |
| 남해 앞바다       | 북서~북 | 2.0~3.0 | 북  | 북동 1.5~2.5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북서~북 | 1.0~2.0 | 북  | 북동 0.5~1.5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북서~북 | 2.0~3.0 | 북  | 북동 1.0~2.5 |
| 남해 서부 앞바다(남) | 북서~북 | 1.5~2.5 | 북  | 북동 1.5~2.5 |

#### ◇물때

| 목포 | 밀물             | 썰물             |
|----|----------------|----------------|
|    | 08:58<br>21:02 | 01:15<br>14:31 |
| 여수 | 04:03<br>16:32 | 10:26<br>22:46 |

#### ◇주간 날씨

| 28(토) | 3/1(일) | 2(월) | 3(화) | 4(수) | 5(목) | 6(금) |
|-------|--------|------|------|------|------|------|
|       |        |      |      |      |      |      |
| -2/8  | 3/8    | 1/9  | 1/10 | 1/7  | -2/6 | -1/8 |

#### ◇생활지수

|  |    |
|--|----|
|  | 25 |
|  | 60 |
|  | 90 |

## 을 봄꽃 개화시기 평년보다 1~2일 빠르다

광주 내달 26일 진달래 꽃망울

올해 광주와 전남의 봄꽃 개화시기는 평년보다 이르지만 작년보다 늦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의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의 개화시기는 평년보다 1~2일 빠르고 지난해에 비해선 3~4일 늦을 것”이라고 26일 예보했다.

진달래는 3월18일 여수를 시작으로 완도 3월21일, 목포 3월24일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에선 3월26일에 진달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나리가 꽃망울을 완전히 터트리는

시기도 완도는 3월20일, 광주와 여수가 3월21일이며, 목포의 경우 3월23일에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봄꽃의 절정 시기가 개화한 뒤로부터 일주일이 소요되는 점으로 미뤄 3월25일~4월2일이면 만개한 봄꽃을 즐길 수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2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3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이를 것”이라며 “일조시간과 강수량의 변화, 개화 직전의 날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200억 한정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빚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